

# “광주 창단 못해도 상무축구단 떠난다”

광주시가 공언한 대로 새로운 프로축구 팀을 창단하지 못하더라도 현재 광주 연고인 상무 축구단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전망이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의 김원동 사무총장은 26일 “프로축구단 창단이 불발될 경우 광주에서 상무를 철수할 수밖에 없다”며 “이사회 결정을 거쳐 새로운 프로팀을 창단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어 “광주 팀은 창단하지



삼성 하우젠  
K리그 2008

## 김원동 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 밝혀

### 기금 등 40억 환원 안되면 市-연맹 갈등

못하면 이미 낸 40억 원을 연맹에 귀속하겠다”고 덧붙여 창단 작업이 불발에 그칠 경우 광주시가 이미 남부한 기입비와 축구 발전기금 환원 문제 등으로 광주시와 프로축구단 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광주시는 지난 2004년에 광주시의 축구 단 창단을 조건으로 K-리그 참여를 승인 받아 축구연맹에 40억원(기입비 10억원·

축구발전기금 30억원)의 입단비를 내고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2009년까지 광주를 연고로 하는 프로축구팀은 창단할 경우 추가적인 기입비 40억 원을 면제해 준다는 조건이 붙었지만, 광주시는 100억원이 넘는 창단 비용과 연간 100억~120억원의 운영 예산 부담 때문에 마땅한 모기업을 찾지 못해 창단 작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재만 광주시 체육지원과장은 “모기업을 바탕으로 하는 프로축구단 창단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경제 기반성이 약한 우리 지역의 사정상 5~10개 정도의 기업이 합류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시민구단 창단을 추진하고 있다”며 “1년 정도 기한을 연장하는 하더라도 40억원의 공중분해는 막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총장은 “모병제가 되지 않는 한 상무는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고 우승 전력이 아니라도 리그에 보탬이 될 수 있다”고 밝혀 상무의 K-리그 잔류 가능성에 힘을 실어 주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국제배구聯, 올림픽 출전 규정 변경 뒤늦게 통보

## 한국 여대표팀 간접파해

### “미리 알았다면 전략 달랐다”

국제배구연맹(FIVB)이 베이징을 립픽 출전 규정을 들여 변경하는 바람에 한국 등이 간접 파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일간지 산케이신문은 26일 FIVB가 베이징을 립픽 세계선(5.17~5.25, 일본 도쿄) 마지막 날인 25일 오후에서야 립픽 출전 규정이 바뀐 사실을 대회 참가국에 통보하는 바람에 소동이 일었다고 전했다.

이전까지 한국 등 대회 참가국은 전체 1위와 아시아 1위, 이 두 팀을 제외한 상위 2개국이 출전한다고 알고 있었다. 이대로라면 전체 1위 폴란드, 아시아 1위 일본과 이를 제외한 3, 4위 팀인 세르비아, 도미니카 공화국이 립픽 출전 티켓을 받아야 마땅했다. 하지만 FIVB는 25일 카자흐스탄-태국전 직후 기자회견 도중에야 “상위 3개국

과 이들을 제외한 아시아 1위 팀이 립픽에 출전한다”는 변경된 규정을 통보했고, 이에 따라 도미니카 공화국 대신 카자흐스탄이 출전 행운을 얻었다.

출전을 포기하고 있던 카자흐스탄 주포파블로바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당보”를 전해듣고 “다른 선수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줘야 한다”고 소리치며 회견장에서 뛰쳐나갔을 정도로 축제 분위기에 훅싸였지만 도미니카공화국은 물론, 한국 등 바뀐 규정을 미리 통보받지 못한 나라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이 됐다.

한국은 변경된 규정을 미리 알았다면 상위 세 팀에 들어갈게 확실한 일본을 제쳐놓고 나머지 아시아 국가를 상대로 전략을 세웠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김형실 배구협회 전무이사도 “FIVB의 사전 통보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공식적으로 이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올림픽 성화 중국 봉송

#### 티베트서 하루만 머물 듯

중국 쓰촨(四川)성 대지진 여파로 베이징 올림픽 성화봉송 일정이 잇따라 변경되고 있는 가운데 성화가 티베트에 단 하루만 머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을 립픽 조직위원회 회장은 당초 6월 19일부터 사흘간으로 예정됐던 티베트 구간 성화봉송 일정이 단축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리는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티베트 내 성화봉송 일정이 하루로 단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진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해 티베트 독립을 요구한 유혈사태가 이유가 아님을 강조했다.



‘진공 청소기’ 김남일도 귀국

일본 프로축구 J-리그에서 뛰고 있는 국가대표 미드필더 김남일(부슬 고베)이 26일 오후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4연전을 앞둔 대표팀에 합류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 법원경매 전문

#### 지지경매컨설팅(주)

(법원 경매입찰장 열)

062-226-0047~8

명석한 권리분석, 명쾌한 명도, 명확한 수익성 분석에 의한 최적화 전문상담

#### ▶ 아파트/빌라

소재지 대/전용 면적/층/가격/최저가

월간수입 대/전용 면적/층/가격/최저가

월간수익 대/전용 면적/층/가격/최저가